

열 손가락을 위한 기도

말하기*그리기 박명숙 들기*쓰기 김민주, 이효정



bmc 주민참여예산사업
우리마을백서 '베스트셀러'

나! 동승을 위해 글이 있으니 책을 읽지만, 이이
크서리안이 작은 명숙이 주짓 손가락을 만리경
이 모작을 읽고 있었다.

남궁자 노론은 어깨까지 이어진 울성 조두은
식과 이 지나 이 차가 되었다. 그러나 조두은은
내 피서지 않았다. 그날 그에게 그날의 삶에 활
내 주지치지 않는 이름이 남겨졌다.



여가 부승의 삶이던 시절, 나쁜 관자가 남았
다. 학부 아이들은 명숙의 손을 보고 나쁜 관자
학이 주교기였다. 명숙은 학부에서 지지 않는 날이
많이였다. 뽕뽕뽕 뽕뽕이 시네마의 날일것
님이 신라처럼 비어있게 한교로 뛰었다. 뽕뽕
이 날일것고, 교실 뽕뽕 일만 일제이 지지를
하는 이성에 건넜었다.

명숙은 늘 긴 옷자리에 손이 없었기 인성남을
차지했지만 '인성 쓰지 남자가 되는 자'라는
명숙이 작별 받았다. 서는 지간에도 뽕뽕
이름 지어 지간을 보냈고, 학이 있는 날이
이였다. 그렇게 교실미교를 뛰어왔다.

명숙이 지어 명성남을 감동한 것은 손이
명숙의 입이 되었다. 부승과 같이 이름이
시절, 명숙은 뽕뽕 뽕뽕이 무나 매수했다.